교실 세 칸의 수자타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학교라는 것을 가본 적 없었던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오지 않았다. "사탕을 주니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수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두세 살 된 동생을 데리고 오니 수업이 제대로 될리 없죠.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수자타아카데미는 2014년 현재 3개 학교에 5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그 규모가 성장했다. 또한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학교 설립은 물론 유아들을 위한 17개 유치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바카 병원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성장했으며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양민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민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우여곡절 끝에 학교 안에서만은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태권도, 전통춤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걸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지구촌 이웃 돌보기 20년

JTS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1997년도부터는 대북지원 사업을 실시해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왔고 2006년부터는 북한 전역 50여개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 시설을 지원해 왔다. 또한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와 2006년~2012년 수해 당시 긴급구호를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지원은 JTS에서 비중이 높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식량은 물론 학용품 옷 신발 이불까지 지원을 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2년 정도 거의 중단된 상태죠. 하지만 현재는 중국 JTS를 통해서 강냉이 국수를 매달 20톤씩 보내고 있고 지난 5월과 6월에는 묘목 10만 그루씩을 보내는 등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JTS는 2003년 위험한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진출했다. 무슬림 지역 마을에 학교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31개의 학교를 건축했으며 이와 더불어 현지 주민의 문화 보존과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JTS는 전 세계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찾아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다. 특히, 2002년~2003년 아프가니스탄의 구호활동은 가장 위험했기에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탈레반들의 총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어두운 새벽에 구호 지역에 도착하면 돈 없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여관을 찾아야 할 만큼 위험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웃음) 하지만 그만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인 만큼 구호활동도 보람이 컸어요. 그때 당시 5명의 아이들을 직접 돌봐준 기억은 지금도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구호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려는 중 사진 속에서 엉덩이가 곪은 아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박 대표는 다음날 그 아이를 찾아 치료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픈 아이는 그 아이 뿐이 아니었다. 눈이 아픈 아이, 허리가 구부러진 아이, 피부병이 걸린 아이 등등 한 아이만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주일 더 머물기로 결정한 박 대표는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각각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었다. 또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신발도 한 켤레씩 사주었다. 두 달 후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 박 대표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다. 바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아이였다.

"긴급구호를 가서 현장 사람들을 보면 잠이 안 와요.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루 빨리 양식을 주고 싶고 담요를 덮어주고 싶죠. 소명감과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요. 내가 혹은 내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일처럼 하게 되죠. 명예와 돈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일은 정말 보람 있죠."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다보니 2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박 대표. 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2000년 한국에 정착해 활동가로 살아온 그녀는 이처럼 봉사에서 보람을 찾지만 그것을 봉사라 생각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저는 다만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늘 세상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또 세상을 돕기 위해 일하시는 법륜 스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평화에 보탬이 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밥 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죠. 저 혼자의 힘은 작지만 법륜 스님과 활동가, 후원자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이니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JTS는 수행과 일의 통일이라는 정토회 이념을 적용해 활동가들의 내실을 다지는데에 주력할 생각이다. "JTS는 100%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무자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전문가가 부족하죠. 그동안 JTS는 수행적 관점보다는 NGO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정토회의 이념을 철저히 적용해 활동가들이 수행의 관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박지나 대표는 … 1961년 부산 출생으로 1979년 미국으로 이민, 1986년도 유닉패키진그룹 매니저로 입사해 1989년 동부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일해왔다. 1992년 뉴욕에서 깨달음의 장을 이수하며 법륜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1993년 인도 JTS 설립 당시부터 활동가로 일해왔다. 2000년 한국에 정착해 2002년부터 JTS 해외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2011년 JTS 대표로 취임해 국제구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일기

베트남 해우소 프로젝트

베트남에서 시골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마라톤을 뛰었을 때의 일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라톤 첫날 5시간 만에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은주는 영상 38도. 수분이 계속 땀으로 배출되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자 나중에는 눈앞의 길과 나무가 나에게 달려드는 환각에 시달렸다. 손등으로 연신 눈으로 흘러드는 땀을 닦아내며 얼굴을 꼬집거나 뺨을 때렸다.

눈앞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다가도 베트남 간판만 한글로 바꾸면 1970년대 한적한 한국 농촌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여기가 베트남이 맞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달리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폭우 수준이라 반드시 비옷을 걸쳐야했다. 결국 승복을 벗고 마라톤 복으로 갈아입었다. 피부가 옷에 쓸려 아프고 땀띠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은 달리는 도중에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심해 피가 흘러내렸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멈추자는 의견도 있었고 차를 타고 위험한 거리를 지나가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나는 달려야만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니 속이 상한 나는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걸었다. 불평도 사치일 뿐이었다.

처음 마라톤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스님이 왜 가사를 벗고 저리 속살을 드러내놓고 뛰는지 모르겠다, 마라톤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차라리 절간에 앉아서 수행을 해라 등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말들이 있었다. 나는 다만 사람들이 '왜 스님이 달릴까' 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베트남 시골 학교에 해우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 몇 몇 사람들은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베트남이고 해우소냐고 묻는다. 먼저 베트남 파병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조금만 이성적으로 되짚어보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생긴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 구미에는 6천여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베트남 출신 노동자만 1,200여명이 들어와 3D 업종에 일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불가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는 베트남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렇다면 해우소란 어떤 곳인가. 화장실의 불교용어로 근심을 푸는 곳이다. 먼 과거 우리 선조가 입었던 은혜,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전쟁 피해 가족들의 상처, 베트남 노동자와 신부들의 홀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묵은 근심을 풀자는 의미에서 해우소 108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108이란 인간이 갖는 번뇌의 숫자를 나타내기에 불가에선 108배 절을 통해 참회와 발원을 다지는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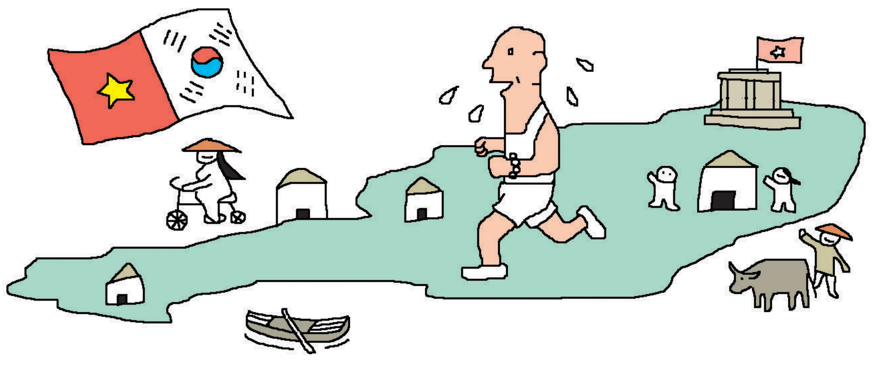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나씩 해우소가 완공 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말은 안통해도 서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의미를 더했다. 우호증진이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오래 간다는 것을 느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여전히 뛴다. 낮 동안 달궈진 땅의 열기가 식지 않아 마치 찜질방에서 달리는 기분이다. 지금까지 총 16군데의 해우소를 신축지원했다. 아직은 한걸음을 내딛은 단계지만 베트남에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져서 우리 후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달린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